

한국문화속에서 청소년양육(상담)에 대한 고찰

이 은 규 교수
(D.R.E., 안양대학교)

국문초록

이 글은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인 문화라는 주제를 다루어 청소년들에게 기독교문화관을 심어 주기 위해 일반적 문화의 개념과 기독교적 문화개념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의 문화의 특징,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고찰한 후 한국청소년의 문화를 살펴본 후 한국청소년의 문화가 반기독교적 성격을 가졌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어떻게 기독교청소년을 양육하고 상담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Paul Tripp 박사의 방법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중심단어 : 기독교문화, 한국청소년 문화, P세대, 구속적 상호작용, 양육

I. 여는 글

문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그 결과물”이라고 정의한다면,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문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문화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상호작용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들과 그들이 입고 창조했던 모든 것, 그들의 관습과 관계, 성격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하지만 그들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수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다양한 권위들의 기반 위에 문화를 만들었다. 창세기 1, 2장의 단순명료한 세계는 사라져버렸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문화적인 바탕은 오염되었고, 영원토록 사람의 문화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문화에 대한 반응태도가 중요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반항적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문화적인 갈등은 항상 옳은 것과 그른 것, 진실과 거짓, 선과 악, 믿음과 불신앙,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다. 스스로를 고립시켜 안전지대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하고, 동화도 실제로는 문화에 대한 항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 문화속에서 청소년을 양육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필자는 기독교적 문화의 이해를 토대로 21세기의 한국문화의 특징을 고찰하여, 어떻게 청소년을 양육하고 상담할 것인가를 단편적인 제시를 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기독교적 문화의 이해

1) 일반적 문화의 개념

문명과 문화는 동의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혹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 의미로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¹⁾

어의상으로는 문명을 뜻하는 영어의 civilization은 라틴어의 civitas에서 유래된 말로 고대 도시국가가 주변지역의 미개상태에 대하여 자기들의 개명된 생활을 스스로 자랑하여 사용한 말이었으므로 발명, 기술, 진보 등과 관련되어 물질적인 개명주의를 의미하였다.

다른 한편, 문화를 뜻하는 culture는 라틴어의 cultus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은 '경작하다,' '가공하다,' '완성하다' 등을 의미하였다.

상술하면 문화는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가치의 자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낳게 함을 의미하였다. 부언하면 문화는 교양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는 인간이 단순한 동물적인 존재에서 인간적인 단계로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 인간완성에의 노력은 수양 혹은 교양이라고 불리워 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문화는 물질적 가치의 창조인 동시에 정신적 가치의 창조라고도 할 수 있다.

2) 기독교적 문화개념

창세기 1장 1-25절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1장 1-25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원료(raw material)였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이 만드신 원료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문화를 만들라고 부탁하신 것이다. 이것이 문화명령의 핵심인 것이다.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즉 당신의 속성을 인간들에게 반영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사람들에게 반영되어, 사람들도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창의적인 속성이 인간들에게 반영되어, 인간들도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속에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고, 그와 함께 문화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왜곡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이 문화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그 결과물이 바로 문화다.”²⁾ 부언하면, 기독교문화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피조계를 개발하여, 모든 문화영역에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어

야만 한다.³⁾

3) 문화의 영향

문화는 청소년들의, (1) '삶의 속도' 를 결정한다. (2) '삶의 예정표(agenda)' 를 결정한다. (3)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규정하고 형성한다. (4)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⁴⁾

위 네 영역을 종합하면 인생 전체가 된다. 이렇게 볼때, 문화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마치 무중력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화속에서 살고 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화의 오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신들의 문화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4)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위한 전제

- (1)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 (2)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 (3) 모든 것은 선을 위해서 사용되든지, 아니면 악을 위해서 사용된다.
- (4) 문화속의 모든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사용자인 인간의 시각을 나타낸다.
- (5) 우리 주의의 문화속에는 결코 중립적인 배경이나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⁵⁾

2. 21세기와 한국문화의 특징

1) 21세기의 특징

David Fisher는 The 21st Century Pastor라는 그의 저서에서 열 가지로 21

세기의 특징을 기술했다.⁶⁾

(1) 국제화: 국제화의 한 형태는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지구촌의 출현이다. 사람들은 당장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다른 형태는 사람들의 거대한 이주이다.

(2) 도시화: 세계는 도시로 이동 중이다. 한 추측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50%가 2000년까지 도시에서 살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보면, 현재는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도시는 죄의 온상이다. 약물과 알코올 남용, 폭력, 도덕적 쇠퇴의 힘은 내용에서가 아니라 단지 형태에서 다르다.

(3) 세속화: 미국문화는 문화의 의식으로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동시키고(퇴출시키고) 있다. 여론 형성자들이 작동하는 문화적 가정은 인간성을 가지고 시작하고 마친다. 매스 미디어는 어떤 종교적 내용 혹은 실천이 빠진 문화를 묘사한다. 과학과 기술의 우세는 객관적인 대상들의 실험에 근거를 둔 세계만이 유일한 실재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을 창조했다. 세속화의 한쪽은 상대론이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은 급진적으로 개인적이다. 사람들은 어떤 기준 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는 왜곡된 도덕성과 지적인 무관심이다.

(4) 과학기술: 인간 세계와 삶은 과학기술에 의해 움직인다.

(5) 개인주의: 개인주의자들은 개인과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더욱이 개인주의자들은 정부 혹은 어떤 공공기관들도 신뢰하지 않는다.

(6) 물질주의/소비주의: 물질이 최상의 가치를 가진다. 때문에 물질은 만족을 준다. 물질이 가치의 척도이기 때문에 물질은 동기부여를 한다. 물질의 양을 축적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소비주의는 자연히 물질주의에 따라 오는 것이다.

(7) 뿌리 없는 생활(근거가 없는 생활: rootlessness) 현 시대는 전례 없는 이동성을 가졌다.

(8) 비도덕적인 생활

세속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외부에 더 이상 도덕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9) 갈등/문화충돌: 인종, 민족, 성, 세대, 가족 그리고 정치적 전쟁들이 이 시대의 문화지도를 그린다.

(10) 하락하는 삶의 질: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하층의 계층이 더 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인토지 소유 편중 비율을 처음 조사했던 1986년 당시의 총인구 대비 상위 5%의 65.2%보다 2005년 7월 7일 현재 17.5% 포인트나 급등한 82.7%이다.⁷⁾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경제적으로 최하층의 계층이 될 수 밖에 없다.

2) 한국문화의 특징

과학과 경제의 발전과 사회변화는 기존 전통적 가치와의 단절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며 세속화를 촉진시켰다. 특별히 초-소비주의, 사이버세계 탐닉, 배아줄기세포 연구, 현세적 중심 사고 등은 기독교를 위협하고 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1) 초-소비주의

① 인간정체성의 구매

김영희는 “세속화의 과정속에서 기업들은 매출을 늘리려고 더욱 자극적인 광고를 하게 되고, 대중문화속에서 개인은 매스컴의 일방적인 정보에 현혹되어 초-소비주의(hyper-consumerism)에 몰들어 정체성마저도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⁸⁾고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지적한다. 이러한 초-소비주의 경향에 대하여 Friese는 “가장 놀라운 것은 개개인이 영화와 텔레비전의 광고에서 제시하는 이미지들을 모델로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건설하는 가장 쉬운 길은 대중매체에서 광고를 제시하는 물품들을 구매함으로써 그 상품이 제공하는 정체성을 따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⁹⁾고 말하고 있다.

Baumeister도 “정체성이 마치 어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어떤 치약이나 차를 구매해

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되었다.”¹⁰⁾고 말함으로써 초-소비주의 시대 속에 인간정체성의 의미가 흔들리는 것을 지적했다.

② 교육의 구매

계층의 이동을 가장 용이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이런 신분상승의 중요한 요소가 된 교육이 이제는 최고의 구매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일부지역과 일부계층의 천문학적 숫자의 사교육비가 문제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가정의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문제가 더불어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일부계층의 과열되고 빼뺀 양상이 오늘의 초-소비주의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Sacks은 “이러한 초-소비주의는 한때는 구매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 영역까지도 구매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이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공을 위해 주는 통로로 여겨지면서 성공을 보장해 주는 일류대학의 간판 따는 것을 목적인양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¹¹⁾ 통계청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자녀 교육비는 2000년 조사 때보다 33%(12만 3천원) 늘어난 49만 4천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23만 2천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4년 전 조사 때는 사교육비가 12만 9천원이었다.”¹²⁾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가구당 평균 자녀교육비가 ‘월 100만 원 이상도 100%’¹³⁾가 된다는 것이다.

③ 외모의 구매

성형수술이 옷 수선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한국사회가 외국인들에게 흥미롭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초-소비주의의 의의 대표적 상품으로 성형수술이 구매용품의 일 순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 한국사회의 현상이다. “지난 2004년 한 인터넷 쇼핑몰이 네티즌 3천 3백 9명(남성 1천 2백 4명, 여성 2천 1백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23%(여성 26.8%, 남성 16.7%)이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형 이유로는 37%가 자신감 회복, 22%가 예뻐지려는 욕심, 17%가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¹⁴⁾ 이렇듯 한국사회는 내면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외모지상주의로 빠져들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 배아줄기세포 연구(과학기술주의)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에서 인간복제가 가정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왜냐하면 “정상급의 복제기술과 부모의 피를 이어 받은 친자녀를 원하는 유교적 가족문화,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정부정책, 과학자들의 생명윤리의식의 결여,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법률 등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¹⁵⁾ 강남대 김흡영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장차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크다. 치매, 파킨슨 병, 당뇨병 등 많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길을 열 수 있다. 21세기는 ‘생명기술의 세기’ 라고 불린다. 줄기세포 연구는 그 중에서도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으니 국가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이해할 만도 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 거대한 잠재시장의 매력 때문이라도 저절로 군침이 고일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¹⁶⁾고 전제하며 인간복제를 막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보면 외국의 언론들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서울대 황우석의 동물 복제인 개복제에 대한 논란도 문제이다.”¹⁷⁾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인간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배아는 엄연한 인간의 생명체”라는 주장과 생명체를 연구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외침은 작게만 들려진다. 이런 사회는 생명윤리의 부재의 사회이고 인간복제를 향해 윤리나 가치에 눈을 가리고 앞으로만 가는 복제기술이라면 인류는 또 한번의 바벨탑을 쌓을 수 밖에 없다.

(3) 사이버세계에 탐닉

현실의 인간관계는 스케줄이 맞지 않아 일일이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버세계는 언제든 열려져 있다. 21세기 개인은 현실세계보다 가상공간을 더 좋아한다. 그곳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사이버세계는 개인에게 ‘익명성’이라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명과 직업과 연령과 외모가 가려진채, 아이디(ID) 하나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

러내지 않고 상대와 채팅할 수 있고, 아비타를 사용하면 자신의 모습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이미 준비된 몇 가지 얼굴, 입술, 코, 눈 등에서 맘에 드는 부분을 따라서 나를 조합하고 합성해 가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꾸밀 수 있다. 현실에서는 나의 모습은 하나지만 사이버 세계에서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도 바꿀 수 있다. 현실에서는 내가 이런 저런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정신분열증이나 대중인격장애라고 오해받겠지만 사이버세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때문에 사이버세계와의 접촉이 깊어질수록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이버세계에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올 때 예전 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경기도 연천의 모 부대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김OO 일병의 경우도, “사이버세계에 중독되면 현실을 게임의 상황으로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며 “김 일병의 경우 전방부대라는 제한된 공간이었기에 이런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¹⁸⁾고 송실대 정보사회학과 배영은 진단했다. 한국사회구성원들이 사이버세계에 빠져들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4) 현세 중심적 사고

한국 국민 대다수는 믿는 종교가 없어도 선한 사람이면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선한 사람도 천국이나 극락에 갈 수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 질문한 결과 1500여명을 대상으로 71.5%가 ‘아니다(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반면 ‘그렇다(갈 수 없다)’는 응답은 18.5%였다고 한다. 또 “극락이나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는 대답이 63.4%, ‘아니다.’라는 답변이 2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한국갤럽의 ‘종교의식’ 조사는 2004년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제주도 제외) 성인 남녀 15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한 1대 1개별 면접을 했고 표본오차는 2.5% 포인트(95% 신뢰수준)이었다.¹⁹⁾

21세기 한국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현세 중심적 사고가 크다는 것이다. 위의 고찰을 통해 부분적이지만 한국문화의 특징이 초소비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사이버세계 탐닉 그리고 현세 중심적 사고 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다. 초 소비주의를 통해 하나님 중심보다는 물질중심,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성경중심 보다는 과학중심, 사이버세계 탐닉을 통해 영적 세계 보다는 가상세계 그리고 현세 중심적 사고를 통해 내세보다는 현세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분석을 하며 21세기는 기독교의 최대 위기 시대라고 제시할 수 밖에 없다.

3) 청소년 문화의 특징

(1) 세대의 정의

세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幅)의 연령층'으로 정의되어 있다.²⁰⁾ 여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는 '공통'이다. 즉 동시대에 같은 체험을 하는, 공유의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대가 시대와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는 시대에 따라 생겨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시대에 따라 생겨난 세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가장 최근에 생겨난 세대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2) 시대에 따른 세대의 등장

흔히 알고 있는 세대를 나열해 보면 신세대, X세대, N세대, W세대, 386세대, 실버세대, @세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생겨난 P세대가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세대들이 있겠지만, 익히 잘 알고 있는 세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건너 뛰기로 한다.

먼저 신세대와 X세대는 현대사회가 가장 처음으로 세대에 대해서 부각된 것이라 생각된다. X세대와 신세대는 같은 단어로 착각이 될 정도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X세대의 어원은 1991년 뉴욕, 미국의 작가 더글러스 쿠플랜드(Douglas Coupland)의 소설 제목이다.²¹⁾ 9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선 기

성세대와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X세대라는 것이 등장하고 개성 있는 젊은이들, 자유분방하고 기성체대의 타협과 보수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로 지칭되어 사용되었다. W세대는 2002년 월드컵 이후 나타난 세대에다. 월드컵 때 그전까지 유래가 없던 많은 수의 거리 응원 인파를 두고 생겨난 말인데, 애국심과 개인 이기주의 탈피, 집단적 광장문화 정착 등 많은 의미를 부여한 세대이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은 단지 축구하는 재미를 추구했을 뿐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국가나 애국심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나친 의미 부여는 그만하자는 입장도 있다.²²⁾ @세대(Atgeneration)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넷 e-mail주소를 이용하여 만든 용어로, 첨단정보산업시대에 뉴미디어의 사용이 일상화 되어버린 세대를 가리킨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13-25세의 연령층으로, 약 1천만 명에 이르는 이들은 연간 10조원 이상의 구매력을 지닌 세대이다. 국내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소비산업이 발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이 P세대인데 이는 가장 최근에 나온 용어로서 익히 알려진 것이 드물다. P세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논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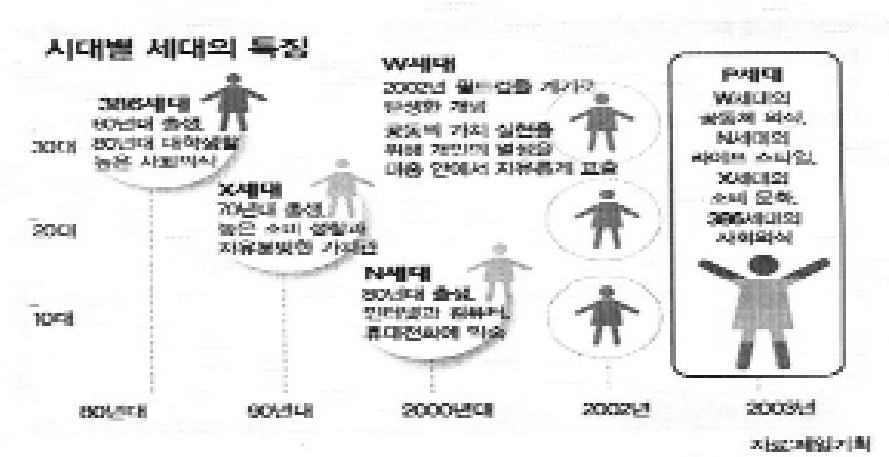
(3) P세대의 등장

① P세대의 의미

P세대는 17-39세까지를 아우르는 집단 용어로 청소년에 국한시키기에는 다소 고 연령층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P세대의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

P세대는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Paradigm-shifter)의 'P'에서 따온 말이다. 386세대의 사회의식과 X세대의 소비문화, N세대의 생활방식, W세대의 공동체 의식 등이 융합된 컨버전스(Convergence)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세대이다(참조 그림 1). 지난해 월드컵과 광화문 촛불시위, 대통령 선거 등에 앞장섰던 새로운 신세대 층을 일컫는 말로써 이들은 90년대 이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로 자유주의 성향을 띠고 해외여행 자유화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으로 '노마디즘(Nomadism)'의 특성을 갖고 있다.²³⁾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것도 P세대가 등장한 배경,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자란 이들은 다양한 소비 패턴을 갖는다.



(그림 1) 시대별 세대의 특징²⁴⁾

② P세대의 문화적 특징

P세대는 사회변화 주도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제 일기획에서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전국 5개도시 17-39세 남녀 1천600명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응답자 중 80%는 “내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70%는 “최근의 사회변화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심사항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순으로 컴퓨터 게임, 영화 등 정적인 활동은 물론 여행, 운동 등 폭넓은 여가생활을 추구한다. 이들 중 절반은 소비에서 정보획득에 큰 관심을 가진 ‘정보탐색형’으로 인터넷 쇼핑물 경험률도 36%로 나타나 2000년보다 4배 가량 늘었다.

특히 응답자의 80%가 “하루도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TV와 인터넷에 하루 평균 6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P세대가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가진 것은 역시 인터넷의 힘이 컸다. 과거에는 ‘변화’가 계몽과 선진, 대중화를 밟았다면 P세대는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며 확산시켜 나간다. 대중매체나 기관이 주동 층이고 대중이 추종자이던 과거와 달리 주동 층과 추종 층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들은 특정목적과 의식을 가진 기성세대를 제치고 새로운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다. 정치 등 이데올로기적 영역은 물론 문화까지 관심과 참여분야도 광범위하며 ‘인터넷’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폭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감성과 이성적인 면을 두루 갖춘 폭넓은 연령대에서 발견되고 도전과 네트워크, 개성표출, 참여를 통해 실제변화를 이끄는 세대로 설명된다. 사회참여적 성향이 강한 반면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미래 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발생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등 부정적인 일면도 없지 않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 특징을 집어낸다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다양성에 바탕을 둔 ‘개인’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감성’ 이라”²⁵⁾할 수 있겠다.

위의 고찰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러한 ‘청소년 문화’로서 P세대의 특징도 한국문화의 특징과 대등소이하고, 현대 청소년문화의 보편적 특성을 “개인 주의적 성향, 현실 만족주의적 성향, 자기표현주의, 영상세대로서의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문화적인 공기 속에 포함될 보이지 않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영적인 보호 장비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 장비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이다.

3. 성경적 문화를 위한 청소년양육방안

문화가 주는 영향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문화에 완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경적인 방법에서 상담자는 이 시대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상담을 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청소년을 그들의 문화에 구속적으로 상호작용하게 준비시키기 위한 방법을 얻게 될 것이다.

1) 준비

십대들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인생관을 불어넣어야 한다. 십대들이 진리를 앞으로써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때문에 상담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딤후 3:7)” 되도록 십대를 위한 성경교육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 일은 성경 본문을 살펴볼 때 매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²⁷⁾

(1) 이 본문이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3) 이 본문이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4) 이 본문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권위 등등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5) 이 본문은 인생과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6) 이 구절은 속사람과 마음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7)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지도해주는 이와 같은 성경본문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8) 이 구절이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가?

2) 연습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주변문화를 비판하고

평가하며 해석하고 분석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먼저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 위에 든든한 토대를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상담자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매체의 내용에 대해 대화하고 상담자의 견해를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그런 매체들을 접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지를(음악가인지, 그 속의 가사인지, 음악인지, 영상인지, 어떤 행동인지, 또래들의 압력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²⁸⁾

상담자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모든 문화에 민감하게 되어 세상문화에 대해 경계하며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담자는 청소년들에게 세상문화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밝혀주어야 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동일화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 속에 존재하는 갈등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이다. 바로 이점이 중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세상문화와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자기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피해의 경험들을 직시한다면, 겸허하게 자신이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슬픔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문화에 대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과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러한 동일한 상황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²⁹⁾

그래서 상담자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깨닫되, 그 해석과 반응에는 따르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문화와의 갈등을 이해하고 왜 이러한 거친 반응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싸움을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라고 가르치면, 비로소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설정하게 된다.

4) 결정

상담자는 청소년들에게 언제 그들이 문화속에 구속사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그들이 그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크리스천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라고 가르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참여와 구별의 문제와 씨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참고: 고전 8, 10, 고후 6:14-18, 롬 14). 상담자들은 청소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과정으로부터도 배제시켜서는 안된다.³⁰⁾ 그러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해야만 하는 무수한 판단의 상황들에 제대로 준비된다. 갈등의 순간들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많은 선택상황에서 성경적인 지혜를 적용하며 살도록 준비시키는 절호의 기회임을 상담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

5) 구속

상담자는 이 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해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문화속에서 크리스천이 주장하는 목소리는 단순히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것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³¹⁾

목표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바를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화를 재형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형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사역의 일원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때문에 상담자는 청소년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새롭게 평가되고 분석된 기술들을 가르쳐야 한다. 상담자는 인생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생각

하며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모범이 되어 한다.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깨닫게 가르치며, 문화의 질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문화가 만들어낸 것들에 깔려 있는 우상을 어떻게 구별 해내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문화적인 논쟁에 참여하는 법을 가르치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외로움에 빠진 고립주의나 개인적인 타협을 빚인 동화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상담자가 청소년들을 상담한다면,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은 언제 문화로부터 스스로 구별되며, 언제 그 문화속에 동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문화로부터 떨어져나오고, 어떻게 문화를 재형성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영향력있는 사람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Ⅲ. 닫는 글

기독교청소년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뿐 아니라 동시에 문화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³²⁾ 이처럼 기독교청소년이 두개의 권위 아래 살아갈 때 취하게 되는 기독교적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Richard H. Niebuhr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만날 때 야기되었던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다섯 가지 유형'³³⁾으로 설명했고, Robert E. Webber는 '세 가지 유형'³⁴⁾으로 다시 축소시켜 문화를 말했다. 그리고 Tripp도 문화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 했다.³⁶⁾

한국문화의 고찰을 통해 보았듯이, 한국문화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드는 그 문화의 성경은 기독교적이지 아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기독교청소년들은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기독교청소년들은 세속사회에 대해 무관심적

인, 이원론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쉽게 동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을 문화에 구속적으로 상호작용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필자는 Tripp의 다섯 가지 방법을 단편적이지만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 참고문헌 】

- Baumeister, R. B. *Identity: Cultural change and the struggle for sel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Riese, R. B. *Self-Concept and Identity in a Consumer Society: Aspects of Symbolic Product Meaning*. New York: Basic. 2000.
- Fisher, David. *The 21st Century Pastor*.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 Niebuhr, Richard H.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5.
- Sacks, P. *Generation X goes to college: an Eye-opening Account of Teaching in Postmodern America*. Chicago: Open Court, 2000.
- Tripp, Paul.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서울: 디모데. 2002.
- 정제우, 조명은. 「강좌 문화사」. 서울: 교학연구사. 1993.
- 박상은. 「인간 배아 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안양: 한국누가회 출판부. 2004.
- 최윤진 외 24인. 「청소년학 총론」. 서울: 양서원. 1999.
- Webber, Robert E. *The Secular Saint: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이충구 역. 「기독교 문화관」. 서울: 엠마오, 1990.
- 김영희. “21세기 첨단기술사회에서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회 논문집」. 제45차(2005).
- 중앙일보. 2005. 7. 16.
- _____ 2004. 11. 23.
- _____ 2005. 3. 19..
- _____ 2005. 8. 5.
- _____ 2005. 6. 21.

Metro News. 2005. 6. 9.

<http://www.cheil.co.kr>

엠파스 국어사전 "<http://100.empas.com/entry.html/?i=92705&Ad=photorental>"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search.html?q=A%BC%BC%B4%EB&부=&m=B>"

[후주]

- 1) 정제우, 조명은, 「강좌 문화사」(서울: 교학연구사, 1993), 9-12.
- 2) Paul Tripp,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서울: 디모데, 2002), 202.
- 3) Robert E. Webber, *The Secular Saint: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이승구 역, 「기독교 문화관」(서울: 엠마오, 1990), 14-5.
- 4) P. Tripp, 212-18.
- 5) Tripp, 200-1.
- 6) David Fisher, *The 21st Century Pastor* (Grand Rapids: Zondervan House, 1996), 63-8.
- 7) 중앙일보, 2005. 7. 16. 3면.
- 8) 김영희, "21세기 첨단기술사회에서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회 논문집」 제45차(2005): 156.
- 9) R. B. Friese, *Self-Concept and Identity in a Consumer Society: Aspects of Symbolic Product Meaning* (New York: Pasic, 2000), 86.
- 10) R. B. Baumeister, *Identity: Cultural Change and the Struggle for Sel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92.
- 11) P. Sacks, *Generation X goes to College: an Eye-opening Account of Teaching in Postmodern America* (Chicago: Open Court, 2000), 156.
- 12) 중앙일보, 2004. 11. 23. 12면.
- 13) 중앙일보, 2004. 11. 23. 12면.
- 14) <http://blog.yonhapnews.co.kr/egleebee/post/2038>
- 15) 박상은, 「인간 배아 복제, 과학의 승리인가?」(안양: 한국누가회출판부, 2004), 8.
- 16) 중앙일보, 2005. 3. 19. 30면.
- 17) 중앙일보, 2005. 8. 5. 26면.
- 18) 중앙일보, 2005. 6. 21. 4면.
- 19) 「Metro News」 2005년 6월 9일자, 6면.
- 20) 엠파스 국어 사전 "<http://100.empas.com/entry.html/?i=92705&Ad=photorental>"
- 21)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search.html?q=X%BC%BC%B4%EB&부=&m=B>"
- 22) 김정운(명지대 여가정보학), 2002. 8. 21, '신세대, 신문화' 심포지엄 주제 발제

일부

- 23)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개념에서 빌려 온 노미디즘(Nomadism), 즉 유목(遊牧)주의는 기존 가치와 삶의 방식을 맹종하는 게 아니라 불모지를 이동해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들뢰즈가 보기에 '육망의 충족 체계'라는 측면에서 성공한 자본주의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탈주(脫走)의 영구 혁명'이 필요한데, 그런 '치고 빠지는 미친 삶의 방식'이 바로 유목적 삶이라는 것이다.
- 24) 동아일보, 2003. 6. 8. 인터넷 신문에서 발췌한 그림
- 25) <http://www.cheil.co.kr>
- 26) 최윤진 외 24인, 「청소년학 총론」(서울: 양서원, 1999), 231-2.
- 27) Tripp, 222-3.
- 28) Tripp, 223-5.
- 29) Tripp, 225-7.
- 30) Tripp, 227-8.
- 31) Tripp, 228-9.
- 32) Richard H.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5), 39.
- 33) Niebuhr, 39-44.
 - ① 대립유형(type of opposition) ② 일치유형(type of agreement)
 - ③ 종합유형(type of synthesis) ④ 역설유형(type of paradox)
 - ⑤ 변혁유형(type of transformation)
- 34) Webber, 15-26.
 - ① 분리모델, ② 동일시 모델, ③ 변혁 모델
- 35) Tripp, 201.
 - ① 거부-고립 ② 동화 ③ 바람직한 성경적인 사고방법(구속적 상호작용)

【 Abstract 】

A Study on Nurturing(Counselling) Youths in Korean Culture

Eun-Gyu Lee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theme of culture, which is the foundation in the lives of today's youths, and compares general cultural concepts and Christian cultural concepts in order to distinguish and instill Christian cultural values in our youths. Moreover,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21st Century culture 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specifically the culture of Korean youths), this paper points out that anti-Christian values are prevalent in Korean youth culture.

By understanding these characteristics, this paper presents a program on how Christian education should nurture and counsel youths.

Key words: Christian culture, Korean youth culture, P-generation, Redemptive Interaction, nurture